

유아교육기관 만족도에 따른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경상남도 OO시를 중심으로 -
전근혜*, 조성제**

The effects on the parent's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Childhood Education Center Satisfaction

Geun-hye Jeon*, Sung-je Cho**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기관 만족도에 따른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OO시의 유아교육기관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부모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만족도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양육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 개선에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arent's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in accordance with the Childhood Education Center satisfac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subjects of study were selected for Childhood education center Parent 700 people in the city, Gyeongsangnam-do OOcity from September 20, 2014 to October 10. Analysis methodology using the program AMOS 18.0 was carried out and verifie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by performing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ion for the children education institute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parenting stress of the parent. Second, the satisfaction for the children education institute not directly affected the parent parenting stress but self-esteem can be seen th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arenting stres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for the children education institute and self-esteem of the parents, the lower Parenting Stres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considered to be a material based on self-esteem and improve parenting stress of their parents.

Key words : Satisfaction, Self Esteem, Parenting Stres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ogram AMOS 18.0

1. 서론

형태의 변환, 무상교육확대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의 교육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유아교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저 출산, 가족

*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 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Seoul, Korea(chosj715@daum.net)

Received August 1, 2015

Revised August 5, 2015

Accepted August 10, 2015

육과 자녀양육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유아교육은 가정에서 유아교육기관으로 옮겨져 옴으로서 유아교육기관은 급격히 양적 팽창을 가지고 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졌다. 따라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며, 유아들의 전인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과 보육수준의 육구가 증대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원아수는 2009년 537,361명에서 2014년 652,546으로 8.2%가 증가하였으며, 보육 원아수는 2012년 1,487,361명으로 2000년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 수는 2009년 35,415명에서 2014년 48,530명으로 7.3%로 증가되었으며[1],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는 2009년 191,103명에서 2012년 284,237명으로 6.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 시설수는 2009년 8373개원에서 2014년 8826개원으로 증가하였고, 어린이집 시설수는 2012년 43,000여개로 2000년에 비하여 2배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2].

그 이유는 2012년 3월부터 우리나라 만 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무상교육인 누리공통과정이 실시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3-4세 어린이에게도 확대 실시되는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3]. 따라서 영유아보육, 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부모의 영유아 양육행동에서 부모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대한 연구에서 모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는 모의 취업유무보다 부의 양육행동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4]. 반면 모와 아동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와 영유아의 일반적인특성에 관계성은 영유아의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 및 가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와 영유아의 특성이 다를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높았다[5].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 모의 양육행동과 영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관계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모의 양육행동 요인은 정적상관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유아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정의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반면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낮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낮을수록, 부부관계의 질도 낮아졌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되었고, 아동의 발달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부부관계의 질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부관계의 질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7].

유치원 운영에서 교육비, 급간식, 교사와 유아인원수 비례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 유치원은 국가 재정 지원이 불충분하여 부모의 학비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8]. 반면, 교사-어머니 의사소통과 유아교육기관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 간의 의사소통이 많으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

물론 교사-어머니 의사소통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학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시설과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유아교육기관 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와 학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학부모의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제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설(H)1 : 유아교육기관 만족도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H)2: 유아교육기관 만족도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H)3: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는 2014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경상남도 OO시의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지 못했거나 불성실한 응답 25명을 제외한 6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 G*Power 3.1을 이용하여, 5%유의수준과 90%검정력, 효과크기는 중간지수 0.15로 지정하였다. 분석결과 최소 표본 수는 157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는 62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설문조사의 취지 및 질문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Self-reported)으로 실시하였다.

2.3 연구 도구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11문항,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35문항, 부모의 자아존중감 25문항,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36문항으로 총 10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척도와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문진 구성

Table 1. Questionare configuration

configuration factor	measurement item	number of questions	reliability
childhood education center satisfaction	general childhood education center operating	5	.890
	health area	3	.938
	curriculum	6	.953
childhood care center satisfaction	physical environment	4	.931
	human environment	11	.977
	relationship with parents	6	.944
self-esteem	self-abasement	5	.815
	relationship with others	7	.767
	leadership and popularity	6	.718
	self-assertion and anxiety	7	.715
self-esteem		25	.901
parenting stress	pain of parents	12	.879
	dysfunctional interaction	12	.915
	difficult temperrament of the child	12	.901
parenting stress		36	.948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부모에 관한 조사도구항목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 하였다[10]. 부모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 가족월 평균수입 등을 조사 하였으며, 자녀에 관한 조사도구 항목은 성별, 연령, 유아교육기관소재지, 유아교육기관 유형, 유아교육기관의 규모 등을 조사하였다.

2.3.2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유아교육기관 만족도는 박경희(1996)가 작성한 질문지의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11].측정방법은 1점이 '매우 불만족한다', 2점이 '불만족 한다', 3점이 '보통이다', 4점이 '약간 만족한다', 5점이 '매우 만족한다'를 부여하였다.

2.3.3 부모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강종구(1986)가 한국판으

로 표준화 한 것을 설문지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2]. 측정방법은 1점이 '전혀 아니다', 2점이 '아니다', 3점이 '보통이다', 4점이 '그렇다', 5점이 '매우 그렇다'를 부여하였다.

2.3.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이귀원(1996)이 수정하여 사용한 PSI/SF를 사용하여, 설문지 3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3] 측정방법은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이 '거의 그렇지 않다', 3점이 '그저 그렇다', 4점이 '그런편이다', 5점이 '매우 그렇다'를 부여하였다.

2.3.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는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와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우추정법(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변인들간의 관계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아빠'보다 '엄마'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연령은 '30-39세', '40-49세', '20-29세'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원졸 이상' 순이

었다. 직업은 '주부'가 가장 많았고,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 순이었으며, 가정의 월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

	item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dad	97	15.4
	mom	531	84.6
age	20-29 year old	35	5.6
	30-39 year old	459	73.1
	40-49 year old	132	21.0
	more than 50 year old	2	.3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167	26.6
	college graduation	244	38.9
	university graduation	202	32.2
	graduate school or higher	15	2.4
job	housewife	362	57.6
	office worker	100	15.9
	business owner	50	8.0
	professions	55	8.8
	official	26	4.1
monthly income	etc	35	5.6
	less than 200million KRW	34	5.4
	less than 200-300million KRW	169	26.9
	less than 300-400million KRW	201	32.0
	more than 400million KRW	224	35.7
	total	628	100.0

유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자'가 '여자' 비율보다 조금 높았으며, 나이는 '만 5세', '만 4세', '만 3세 이하', '만 6세 이상' 순이었다. 유치원의 소재지는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조금 많았으며, 유치원의 유형은 '사립(민간)'이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공립(국공립)', '직장', '가정' 순이었다.

표 3. 유아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3.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nfant.

	item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boy	331	52.7
	girl	297	47.3
age	less than 3year old	133	21.2
	4 year old	182	29.0
	5 year old	209	33.3
	more than 6year old	104	16.6
kindergarten location	city area	328	52.2
	country area	300	47.8
kindergarten type	private	396	63.1
	public	79	12.6
	workplace	13	2.1
	home	9	1.4
	social welfare	131	20.9
	total	628	100.0

3.2 관측변인의 다변량 정규분포성 검증 및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측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다변량 정규분포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최대우도 추정법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할 때, 다변량 정규분포성의 가정에 위배가 된다면 모수치가 왜곡되어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토할 때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절대값의 크기로 평가하며, 왜도는 절대값 3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라고 보며, 첨도는 8 또는 10을 초과하면 극단적이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변량 정규분포성 분석을 검토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부모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 각 변인들의 왜도(-1.649~0.900)는 3미만이었으며, 첨도(-0.304~3.314)는 7미만으로 나타나 본 자료는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다변량 정규 분포 해석

Table 4.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analysis

factor	measured variabl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childhood education center	general childhood education center operating	4.11	.84	-1.168	1.751
	health area	4.20	.89	-1.202	1.485
	curriculum	4.26	.84	-1.452	2.622
satisfaction	physical environment	4.16	.87	-1.128	1.393
	human environment	4.37	.80	-1.649	3.314
self-esteem	relationship with parents	4.05	.86	-.710	.309
	self-abasement	3.59	.69	-.355	.334
	relationship with others	3.85	.57	-.441	.141
	leadership and popularity	3.54	.52	.409	.070
parenting stress	self-assertion and anxiety	3.48	.52	-.127	.419
	pain of parents	2.48	.67	.398	.396
	dysfunctional interaction	1.91	.65	.900	1.365
	difficult temperrament of the child	2.21	.66	.339	-.304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부모의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교육기관 만족도의 일반적 유아교육기관운영($r=-.222, p<.001$), 인적 환경($r=-.207, p<.001$), 부모와의 관계($r=-.200, p<.001$), 교육과정($r=-.191, p<.001$), 건강영역($r=-.170, p<.001$), 물리적 환경($r=-.167, p<.001$) 순으로 높은 부의 상관이 있었고, 부모 자아존중감의 타인과의 관계($r=-.622, p<.001$), 자기비하($r=-.536, p<.001$), 자기주장과 불안($r=-.498, p<.001$), 지도력과 인기($r=-.445, p<.001$) 순으로 높은 부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모든 관측변인들 간에 0.90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아 교육 센터 만족도, 부모의 자아 존중감, 양육 스트레스 간의 부모 관계

Table 5. Parents of childhood education center satisfaction, parental self-esteem,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Item	childhood care center satisfaction						self-esteem				parenting stress			
	1	2	3	4	5	6	7	8	9	10	14	15	16	17
general childhood education center operating	1	1												
childhood education center satisfaction	health area	2.766***	1											
	curriculum	3.760***	.799***	1										
	physical environment	4.731***	.761***	.791***	1									
	human environment	5.719***	.721***	.780***	.714***	1								
self-esteem	relationship with parents	6.657***	.700***	.736***	.651***	.802***	1							
	self-abasement	7.187***	.176***	.155***	.168***	.178***	.202***	1						
	relationship with others	8.211***	.188***	.201***	.199***	.225***	.164***	.575***	1					
	leadership and popularity	9.132**	.140***	.145***	.155***	.173***	.183***	.541***	.522***	1				
	self-assertion and anxiety	10.143***	.160***	.151***	.166***	.154***	.163***	.583***	.617***	.634***	1			
parenting stress	pain of parents	1.190***	-.165***	-.179***	-.168***	-.188***	-.205***	-.541***	-.558***	-.410***	-.507***	1		
	dysfunctional interaction	1.219***	-.150***	-.182***	-.121**	-.205***	-.166***	-.458***	-.552***	-.387***	-.386***	.560***	1	
	difficult temperament of the child	1.171***	-.128**	-.138**	-.145***	-.148***	-.150***	-.399***	-.515***	-.365***	-.405***	.523***	.831***	1
parenting stress	1.222***	-.170***	-.191***	-.167***	-.207***	-.200***	-.536***	-.622***	-.445***	-.498***	.801***	.913***	.899***	1

** p<.01, *** p<.001

3.3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

하위요인들을 측정하는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우추정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이 $\chi^2=391.852(df=62, p<.000)$, CMIN/DF(Q값)=6.320, GFI=0.914, AGFI=0.874, RMR=0.024, RMSEA=0.092, NFI=0.934, TLI=0.930, CFI=0.944로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이 수용 가능한 적합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Q값과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이후 연구 모형 검증에서 수정지수를 통해 모형을 수정하고

자 한다.

표 6. 확인 요인 적합한 분석 모델

Table 6. Goodness fi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item	$\chi^2(p)$	df	χ^2/df	CFI	GFI	TLI	RMR	RMSEA
model	391.852(.000)	62	6.320	0.944	0.914	0.930	0.024	0.092
standard	p>.05	3under	.9over	.9over	.9over	.05under	.08under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추정된 경로계수들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5이상으로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이 확보되었다.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이론적으로 각 변인의 분

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가 0.5이상,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가 0.7 이상이어야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분산추출지수는 모두 0.5 이상이었고, 개념 신뢰도는 0.7 이상이므로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이는 곧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살펴보면, 판별타당성은 하나의 잠재변인이 실제로 다른 잠재변인과 얼마나 차별적인가를 나타내며, 평가방법으로 두 잠재요인 각각의 분산추출지수가 두 잠재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제곱, 즉 결정계수(r^2)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분석 결과 본 자료의 분산추출지수는 잠재요인간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므로 판별타당성도 확보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7]와 [Table 8]에 제시하였다.

표 7. 확정요인 및 신뢰성 분석 결과
Table 7.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ingredients	measured variables	standard	standard deviation	AVE	C.R
childhood education center satisfaction	general childhood education center operating	.844	.204	.797	.959
	health area	.874	.186		
	curriculum	.910	.120		
	physical environment	.852	.208		
	human environment	.863	.165		
self-esteem	relationship with parents	.817	.246	.803	.942
	self-abasement	.740	.214		
	relationship with others	.786	.123		
	leadership and popularity	.722	.131		
	self-assertion and anxiety	.794	.099		
parenting stress	pain of parents	.622	.277	.826	.933
	dysfunctional interaction	.927	.060		
	difficult temperament of the child	.888	.092		

표 8. 잠재변수의 상관 관계 행렬
Table 8. Latent variables correlation matrix.

	AVE	childhood care center satisfaction	self-esteem	parenting stress
childhood education center satisfaction	.797	1		
self-esteem	.803	.237***	1	
parenting stress	.826	-.221***	-.641***	1

*** p<.001

3.4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과 동치모델로 모형의 적합성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chi^2=391.852(df=62, p<.000)$, CMIN/DF(Q 값)=6.320, GFI=0.914, AGFI=0.874, RMR=0.024, RMSEA=0.092, NFI=0.934, TLI=0.930, CFI=0.944)와 일치하였다. 이에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s)를 살펴본 결과, 수정지수 값이 보수적인 수준에서 원하는 10(Fassinger, 1987)을 초과하는 오차변량 중에서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e2과 e5, e5과 e6, 그리고 e7과 e8, e9와 e10, 마지막으로 e11과 e12, e11과 e13 사이를 공분산 경로를 연결하여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함으로써 모형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chi^2=128.765(df=56, p<.000)$, CMIN/DF=2.299, GFI=0.970, AGFI=0.951, RMR=0.010, RMSEA=0.046, NFI=0.978, TLI=0.983, CFI=0.988로 각 지수의 적합도가 나타났다. 해당 χ^2 값은 유의수준 5%에서 모형이 자료에 일치한다는 가설이 기각되었으나, χ^2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적합도 지수를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하는 지수로 이용하였다. [표 9] 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초기모형에 비해 수정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을 통해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9. 적합한 모델 비교

Table 9. Goodness fit of the model comparison

item	χ^2 (p)	df	χ^2/df	CFI	GFI	TLI	RMR	RMSEA
early model	391.852 (.000)	62	6.320	0.944	0.914	0.930	0.024	0.082
retouch model	128.765 (.000)	56	2.299	0.988	0.970	0.983	0.010	0.046
acceptance criteria	p>.05		3rdtr	9thtr	9thtr	9thtr	5thtr	8thtr

3.5 가설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연구모형을 통해 추정된 경로계수를 통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와 최종 모형의 경로별 결과는 [Table 10]와 같다.

표 10. 현황 연구 가설 채택

Table 10. Status research hypotheses adopted.

hypothesis	standardize d path coefficients	standard deviation	t	Statushypothesisadopt ed
childhood education center satisfaction->self-esteem	.258	.034	5.938***	hypothesis latetd
childhood education center satisfaction->parenting stres	-.038	.027	-1.375	hypothesis2 rjected
self-esteem ->parenting stres	-.625	.054	-14.40***	hypothesis 3adpted

*** p<.001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만족도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beta=.258, p<.001$). 따라서 부모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 자신의 자기비하와 자기주장과 불안이 낮고, 타인과의 관계 및 지도력과 인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만족도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는 기각되었다($\beta=-.038, p>.05$). 이는 부모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채택되었다($\beta=-.625, p<.001$). 즉,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3.5.1. 직·간접효과 분해

구조방정식 모형은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두 변인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총효과(total effect)를 분해하여 제시한다.

최종모형의 전체효과에 대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추정한 후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1]와 같다.

표 11.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 변수 사이의 검증 결과.

Table 11. Verification results between the latent variables that affect the parenting stress.

route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childhood education center satisfaction ->self-esteem	.258	.258***	
childhood education center satisfaction ->parenting stres	-.200	-.038	-.161*
self-esteem ->parenting stres	-.625	-.625***	

* p<.05, *** p<.00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잠재변인들의 전체효과는 부모의 자아존중감($\beta=-.625$), 유아교육기관 만족도($\beta=-.200$)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만족도의 전체효과는 직접효과(-0.038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한 간접효과(-0.161의 합이며, 이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정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유아교육기관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4는 채택되었

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 만족도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만족도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beta=.258, p<.001$). 따라서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만족도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는 기각되었다($\beta=-.038, p>.05$). 이는 부모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채택되었다($\beta=-.625, p<.001$). 즉,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잠재변인들의 전체효과는 부모의 자아존중감($\beta=-.625$), 유아교육기관 만족도($\beta=-.200$)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만족도의 전체효과는 직접효과(-)0.038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한 간접효과(-)0.161의 합이며, 이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정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유아교육기관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4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 만족도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만족도에 따른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 자신의 자기비하와 자기주장과 불안이 낮고, 타인과의 관계 및 지도력과 인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전체 자아존중감에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와 유의미하다. 이 의미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전체 자아존중감과 의미 있는 부적의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와 유의미하다. 이 의미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았다는 결과(15)와 유의미하다. 이 의미는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부모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반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기관 만족도는 가정과 유아교육현장을 연계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가정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만,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유아교육기관 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남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기관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부모교육 실시와 교육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넓혀감으로서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심리적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aterials, 2014.
- [2] Ministry of Education, 2014.
- [3] S. Y. Cho, "Teacher's Work Satisfaction and Work Stress in Child Care Center."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37, pp. 127-149, 2004.
- [4] S. Y. Kim, "A Study on Mother's Parent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Father's Infant Parenting Behavior and Mother's Employment Statu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64, pp. 119-153, 2010.
- [5] H. M. Jung, M. S. Ahn, "Relationship between Goodness-of-Fit for Mother-Preschool Child and Parenting Stress in Mother", J Korean Acad Nurs, Vol.39, No.1, pp53-61, 2009.
- [6] S. R. Kim, J. M. Hong, H. K. Hong, "The Relations among Mother's Behavior toward Rearing, Mother's Rearing-stress and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Children's Media Research, Vol.9, No.2, pp.113~132, 2010.
- [7] J. H. Suh, J. K. Kim,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fancy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3, pp. 101-121, 2012.
- [8] H. J. Kim, E. S. Choi, "A Son the Mothers' Satisfaction and Selection Criteria o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Life Sciences, Vol.9, No.6, 2003.
- [9] M. J. Lee, H. J. Moon, "Teacher-Mother Communication : Its Effect on Satisfaction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n Parenting Stress", Children's Society, Vol.29, No.1, 2008.
- [10] Community Health Survey, 2010 healthy happy positive community healthy investigation, http://chs.cdc.go.kr/03contents/contents_04.jsp, 2010.
- [11] K. H. Park, "Study on How Parents Select Kindergarten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1998.
- [12] J. G. Gang, "Self-concept and career maturity consciousness, the impa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 career aspir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986.
- [13] G. W. Lee, "A study on Mothers' parenting stress from mainstreaming preschool children with special needs", Dept.

of Speci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1996.

[14] S. R. Kim, J. M. Hong, H. k. Hong, "The Relations among Mother's Behavior toward Rearing, Mother's Rearing-stress and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Children's Media Research, Vol.9, No.2, pp.113~132, 2010.

[15] J. H. Suh, J. K. Kim,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fancy Maternal Parenting Stres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3, pp. 101-121, 2012.

저자약력

전 근 혜(Geun Hye Jeon)

[정회원]



- 2010년 8월 :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 석사)
- 2013년 9월 ~ 현재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외래교수
- 2014년 3월 ~ 2015년 2월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부모교육, 영유아 발달상담, 교사교육, 유아컴퓨터, 산학융합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7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 교육방법, 정보보안, 데이터베이스